

# ‘정읍천~정읍역’ 관광 핫플레이스로

### 역 광장, 문화·휴식 공간 재탄생...정읍천 연계 관광객 유입 유도 2026년까지 유희지 창작 문화공간 활용·폭포 터널 조성 등 완료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하차도와 파출소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읍역 광장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하는 관광 발전계획을 수립해 내장산과 용산호, 문화광장 등으로 유입되는 방문객을 시내 지역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사업 추진부서 및 해당지역 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핵심사업 검토와 신규사업 발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정읍천 분수를 통한 야간 체험 시설과 미로분수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기 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희지를 활용한 창작 문화공간 조성하고 폭포 터널, 발 담금터, 정읍천 주변 체험시설, 정읍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외부 방문객의 도심 유입을 유도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역과 정읍천에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상호협력 MOU



최경식(가운데 왼쪽) 남원시장과 박찬덕 회장(오른쪽)이 등이 ‘2023년 남원 FAI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남원시와 대한민국항공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 남원시-대한민국항공회

남원시가 ‘2023년 남원 FAI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항공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와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와 대한민국항공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오는 10월6일-9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드론 레이싱’ 뿐만 아니라 ‘드론 축구’를 포함한 각종 드론 레저 스포츠, 국제 드론 엑스포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항공회 등과 초협력해 이번 챔피언십 대회 엑스포를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방문의 해’ 선운사 올해 관람료 무료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천년고찰 선운사가 올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와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만나 협의한 끝에 ‘고창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존 일반인 4000원이었던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덕섭 군수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창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대응적으로 결정해주시는 선운사와 경우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국가 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를 품고 있는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8000명의 방문객이 찾은 고창군의 대표관광지다.

선운사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대웅전 ▲참담암 대웅전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 8개의 국가



국가 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천년고찰 선운사 전경.

지정 보물이 있는 곳이다.

또 봄에는 동백꽃, 가을에는 꽃무릇이 만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과 함께 고창군에

서는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료화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 추진상황 보고회...민간 투자유치 등 부서별 대응 방안 마련

고창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3건이 완료되고 7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최근 노형수 부군수와 공약담당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2023년 추진계획, 추진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군민행복, 활력고창 비전선포식’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달성하기 위한 6대분야 15대전략 80대과제 공약사업을 확정해 바 있다.

심덕섭 군수 민선8기 공약사업은 현재까지(1월 말 기준) 완료 3건, 정상추진 72건, 미착수 등 5건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고창군 재난기본소득(3차) 지급’, ‘감염병 전담조직 강화’ 등 3건으로 취임 후 발빠르게 진행해 완료했다.

고창군은 ‘전력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 등 민간 투자유치 및 국가사업 반영과 같이 속도가 더딘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각 부서별 협력을 통해 사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매달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군민이 공약이행을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이 더딘 사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의료 소외지역 ‘찾아가는 구강관리’

### 시, 다음주부터 북면 이문마을 등 33개 마을 상담·검진 등

정읍시가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해 치과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치과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평소 치아관리가 어려워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예방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 구강병을 사전 예방하고 치료 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강검진과 함께 구강 관리교육도 추진한다.

순회 진료는 오는 6일부터 북면 이문마을을 시작으로 감곡면 지역 등 33개 마을에서 시행된다.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치과 전문인력이 구강 보건교육과 상담, 개인별 구강검진 등을 도와준다.

특히 중차·시린 이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을 시행하고 구강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방문 구강검진을 통해 치료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건소로 내원을 유도하고 중증 구강질환 환자에게는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들은 치아 치료시기를 놓쳐 구강질환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남원시, 5년 연속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남원시가 지난 2019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 가입을 5년 연속 진행한다.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7만 8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자전거사고 휴유 장애 500만원, 자전거 상해위로금 20-60만원(4주-8주이상)이다.

4주이상 진단 시에는 입원위로금 20만원 등 전

년보다 상해위로금, 입원위로금이 상향 보장되며 보험금은 타 상해보험 등과 중복으로 청구·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216명, 1억 4600여만원의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도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